

DEI PRO REGNO VERITATIS IUSTITIAE ET CARITATIS

- THE TRUTH SHALL MAKE US FREE -

행소 신일희 박사 교육희년기념

6.25 동란 직후인 1954년 생선 운반선을 타고 정든 고향을 떠난 15세 소년이 있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 4주만에 도착했던 미국 동부의 켄트고등학교.

그는 학생 중 유일한 유색인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4년 후 학교가 주는 최고의 상인 컬럼비아컵을 받으며 졸업합니다.

이후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하고 27세의 젊은 나이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 취득하고 한국의 부모님께서 소개해 주신 아리따운 아가씨 박병희를 만나 가정도 이루게 됩니다.

첫 직장은 뉴욕 시립대학교 퀸즈대학이었습니다.

그간 대출한 학자금에 갚으며 보냈던 첫 5년.

이는 행소가 고등교육계에서 보낸 50년 교육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국과 독일에서의 교수생활을 거쳐 1972년 연세대학교 독문학과 초대학과장으로 귀국했던 그는 1974년 아직 30대의 젊은 교수로 개교 20년 된 계명대학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대구를 떠난지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계명대학은 지방의 조그마한 사립대학이었습니다.

이후 40여 년에 걸친 세월동안 계명과 오랜 동행을 하게 되지만 그 길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계명대학과 종교단체가 가졌던 고등교육의 기능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개교 초기 아담스 학장 때부터 시작되어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기획실장으로서 재정확보와 시설확충은 물론 한강 이남 최고의 교수진 확보를 위해 일하던 행소는 1978년 계명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면서 초대총장으로 취임하고 경영자로서 56만 평 성서캠퍼스를 구축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됩니다.

대명 캠퍼스를 팔지 않고 막대한 재정적인 투자를 감당하려는 어려운 목표를 관철시키며 1979년 성서캠퍼스 신축공사에 착수했고, 학문적 탁월성의 상징이 된 계명비사상 제도를 제정, 1979년 2월 그 첫 수상자를 배출합니다.

동산병원과의 통합과정에서도 교계와 일부 구성원들의 완강한 저항이 있었지만 끈질긴 설득으로 1980년 통합에 성공,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하지만 1982년 군부정권의 압박으로 대학은 경영권을 빼앗기고 총장은 강제사퇴하게 됩니다.

외부인과의 접촉조차 감시되던 경직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행소는 교실로 돌아가 인문학이 이루어야 할 수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 (제자 김성렬 교수, 74학번)

처음 뵈 인상은 아주 범접하기 어려운 귀족적인 교수님. 딱 이런 정도였습니다.

우리 모든 제자들이 아주 많은 은혜를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프거나 몸이 약한 제자에게는 약을 전하시고 유학 가는 제자에게는 여비도 전하시고...

아픈 제자에게는 약을, 유학 가는 제자에게는 책값을.

호텔에 데려가 서양식 식사예절까지 가르쳤던 행소.

### (제자 최윤영 전국공무원노조 국장 81학번)

84년도에 독문과 김형준 동문하고 학교 앞에서 막걸리를 마시다가 막걸리 값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삼덕동에 있는 선생님 자택으로 갔는데 대문이 닫혀있어서 월담을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과 문을 두드려서 선생님께서 나오셨는데 저희를 서재로 안내하셨고 양주 한 병을 주셨어요. 술을 안드시는데. 새벽까지 제자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셨죠. 새벽 3시가 넘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승용차로 저희 자취방까지 데려다 주셨죠. 선생님과 저희 제자들 간에는 격의가 없었습니다. 운동도 잘하셨고, 유머도 대단히 많으셨고, 80년대의 제자들이 기억하는 선생님은 어렵거나 힘들지 않았어요.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었고...

당시 제자들은 학자이자 스승으로서의 행소를 가까이서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6년의 세월이 지날 무렵, 계명대학교는 4대 총장으로 다시 행소를 임명합니다.

그는 학교의 지속적인 계획을 실천에 옮겨 나갔습니다.

1998년 전국 최초로 교수연봉제를 채택하여 학문적 탁월성을 추구했고, 그해 대학종합평가에서도 우수대학으로 선정. 각종 국책사업을 유치하며 학교의 내실을 다져가게 됩니다.

한편 행소가 학창시절부터 키워왔던 건축과 예술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재능은 이후 계명의 자랑거리가 된 건물에 녹아나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된 아담스 채플.

지역의 명소가 된 계명한학촌.

국제적인 전시를 유치하는 행소박물관.

명실공히 공연문화의 중심이 된 계명아트센터.

행소가 70년대부터 골동품상 뒷골목을 다니며 부지런히 사 모은 고문서들 덕분에 동산도서관은 서울대 규장각 다음으로 많은 국가문화재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건물 한 동, 돌 하나, 나무 한 그루 모두 제 자리가 있는 아름다운 캠퍼스.

그의 주도하에 지어진 수려한 캠퍼스는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도 인기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특유의 지성과 매력, 헌신된 삶으로 얻은 국제 사회의 신임을 통해 국제적인 기관들과 계명대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는데, 중국 정부가 설립한 공자 아카데미에서는 중국인 이외의 유일한 아시아인으로 본부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계명쇼팽음악원을 설립. 국제적 위상의 쇼팽피아노콩쿨도 이미 3회째 계명대에서 공동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비전을 가지고 키운 한국학연구원이 발행한 논문집은 2012년 스코퍼스에 등재.

2014년에는 실크로드중앙아시아연구원을 설립하여 다가올 시대의 문화적 지각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의 매월 급여 1% 기부금으로 결성된 1% 사랑나누기 운동을 통해 기부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학생들의 해외봉사활동을 전폭 지원하였으며, 2003 유니버시아드와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는 선수촌장으로 봉사하였고,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민간외교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 모임을 결성하는 등 계명정신을 지역사회봉사의 영역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계명이 태어난 정신적인 뿌리를 기억하는 행소는 2014년 제중원이 시작된 1899년을 계명대학교의 설립연도로 선포함으로써 계명의 역사적 위상을 공고히 하고, 개혁정신과 봉사정신으로 시작된 계명의 초심을 계명의 구성원들과 사회에 다시 일깨웠습니다.

**(2013년 신입생 대상 특강 총장님 말씀)**

이것이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모교 계명대학교입니다.

최고의 대학이 아닐 수 있겠죠. 세계에서 아닐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대학. 그 정신을 여러분이 이어받아서 하나밖에 없는 인간이 되세요. 아까 얘기한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속에, 존재 속에 무슨 값진 것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4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그것을 찾으세요. 공부벌레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밖에 없는 인간으로 만들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낼 때 여러분은 그 때 비로소 어깨 펴고 고개를 들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가치.

자기 스스로를 하나밖에 없는 인간으로 만드는 학생, 제자가 있다면 우리 900명의 교수님들은 우리의 생애가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